HSDPA로 DC산업 전기 맞이하자

조영주
한국디지털콘텐츠미래포럼 의장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 이집트 · 중국 · 인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각 문명들이 각각 티그리스강 · 나일강 · 황하 · 갠지스강 등 주변에 거대한 강을 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대 도시에서 강은 도시에 식수와 농경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고, 물고기와 같은 먹거리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육상 이동이 어려웠던 시대에 다른 지역과의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고대도시의 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철도와 도로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기존의 도시를 잇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도로지만, 도로가 생겨나면서, 기존 도시는 더욱 발전하고, 동시에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와 산업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는 현재의 필요만이 아니라, 미래의 수요까지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산업규모나 차량보유대수로 보았을 때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찬사나 기대보다는 비난과 우려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과 20년도 지나기 전에 늘어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4차선, 5차선으로 도로 폭을 넓힐 수밖에 없었다.

미래 수요까지 고려해야

도로와 도시의 상관관계는 이동통신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HSDPA(High Speed Download Packet Access)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광대역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되었다. 도로로 비유하자면, 오솔길이 간선도로로 바뀌고, 간선도로가 고속도로로 바뀐 격이다. 새로운 통신망의 구축은 그간 성장 정체를 보였던 무선데이터 분야가 재도약하여 이동통신산업이 선순환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쯤이면, 데이터통신의 매출이 음성매출에 근접하리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기존 이동통신망의 속도와 용량에서의 한계로 시장 예측은 빗나갔고, 무선데이터 시장은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3세대 이동통신망의 지배적 표준인 WCDMA가 진화한 HSDPA는 이러한 기존 무선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여 유선인터넷에 근접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대역폭도 획기적으로 넓어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고객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트당 네트워크 효율이 기존 CDMA망에 비해 월등하여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요금상품의 도입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HSDPA의 장점은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양산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 망의 용량과 속도로 인해, 시도해보지 못한 많은 서비스들이 HSDPA 도입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동통신의 개인성과 위치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한 번 고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저변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성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무선데이터 산업에 진입하여 도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HSDPA는 DC도약의 발판

물론, 장밋빛 기대만으로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와 비관적 시각 때문에 밝은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를 닦았다고 해도, 가고 싶은 곳이 없거나 싣고 갈 화물이 없다면 고객들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이유가 없듯이, HSDPA 인프라라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은 콘텐츠업체 뿐만 아니라, 망 진화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콘텐츠 기업은 진화된 통신망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들도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앞당겼듯이, HSDPA라는 정보화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무선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